

화장실 10만 곳 점검... 실적 '0' 여성안심보안관 '있으나 마나'

서울시, 불법촬영 근절위해 도입
3년간 몰래카메라 적발 건수 '0'

서울시가 불법촬영을 근절하기 위해 도입한 '여성안심보안관'이 지난 3년간 몰래카메라를 단 한 개도 찾아내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성안심보안관은 공공시설에 설치된 몰카를 적발하기 위해 서울시가 2016년 8월 마련한 제도다. 보안관들은 지하철역 화장실, 수영장, 탈의실, 공연장 등에 찾아가 전자파 탐지장비와 적외선 탐지장비를 이용해 몰카 설치 여부를 점검한다.

6일 시에 따르면 여성안심보안관은 2016년 8월부터 이날까지 총 3만703개 건물 내 10만6302곳의 화장실을 점검했다. 몰카 적발 건수는 '0' 건이다.

하지만 시는 사업의 주목적은 '몰카 근절 캠페인'을 통한 범죄 예방이라며 문제 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집중단속기간(7월 1일~8월 20일)에 불법촬영으로 입건된 피의자 수는 983명으로 2016년 같은 기간에 비해 2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안심보안관 활동



여성안심보안관 활동 모습. /서울시

이후에도 불법촬영범죄가 줄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에 시 관계자는 "여성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확충을 위해서라도 사업은 계속되어야 한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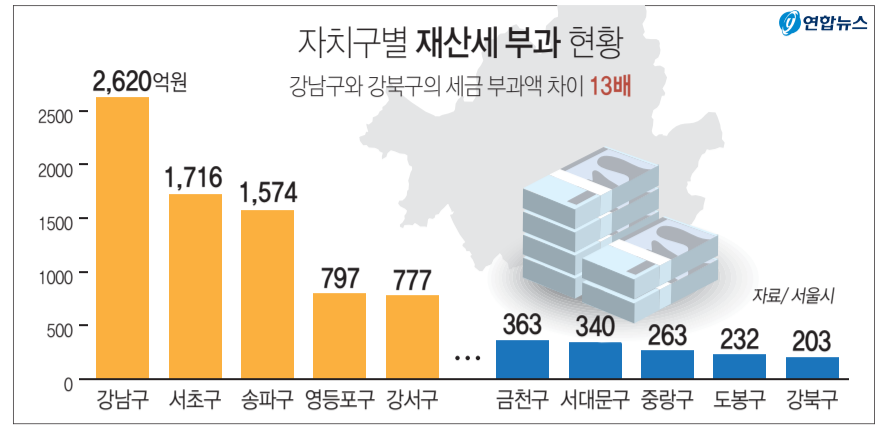
여성안심보안관들은 지하철역사 내 화장실뿐만 아니라 학교나 총학생회 측의 요청으로 이화여대, 서강대, 경희대에서 몰카 점검을 실시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정책의 실효성 논란이 줄지 않자 시는 올해 1월 여성안심보안관 제도를 민간의 영역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민간시설이나 기관이 서울시에 점검 신청을 하면 여성안심보안관이 현장에 나가 확인하거나 몰카 탐지 장비를 장기 임대 해주는 방식이다. 강제성이 없어 지난 6개월간 신청 횟수는 14건, 임대된 장비개수는 29대에 불과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점검 권한이 없는 시와 달리 자치구 위생부서는 요식업과 숙박업소 등 민간 업체 점검 권한을 갖고 있다"며 "자치구와 협조해 여성안심보안관이 민간 영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울 강남·북 재산세 '13배' 차이

강남구 '2620억' 강북구 '203억'

서울 자치구별로 부과된 7월분 재산세에서 강남구와 강북구가 13배나 차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이번엔 부과된 7월분은 주택(50%), 건물, 선박, 항공기가 납부대상이다. 9월에는 나머지 주택(50%)과 토지가 그 대상이 된다.

16일 서울시의 자치구별 7월분 재산세 부과현황에 따르면, 강남구가 2620억 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1716억 원, 송파구 1574억 원 순이다.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 203억 원이고, 도봉구 232억 원, 중랑구 263억 원 순으로 집계됐다. 전체 7월분 부과 서울시 재산세 규모는 419만 4000건, 1조6138억 원이다. 유형별로는 주택이 1조197억 원(330만 5000건), 건물(비주거용)이 5843억 원(88만 8000건), 선박 8000만원(1000건), 항공기 97억 원(200건)이었다.

주택 및 건물의 재산세 건수는 지난해보다 10만 6000건(2.6%) 증가했는데,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이 8만 2900건(2.9%) 증가, 단독주택이 4000건(0.8%) 증가, 비주거용 건물이 2만 2000건(2.5%) 증가했다. 지난해에 비해 공동주택의 증가폭이 단독주택의 증가폭보다 높은 이유는 주택 재개발·재건축의 영향이며, 비주거용 건물(상가 등)의 부과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오피스텔 신축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주택 및 건물의 재산세 금액이 지난해보다 1488억원 증가한 이유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 및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공동주택은 10.2%, 단독주택은 7.3%, 비주거용 건물은 3.0%씩 각각 증가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산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 1847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해 25개 자치구에 473억 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오진희 기자 valere@

초복 앞두고 '개식용 종식 vs 육견농가 생존'

식용종식 관련 청원 21만명 돌파
5000여 육견농가 생존권 촉구

초복(17일)을 앞두고 '개고기 식용' 찬반집회 및 행사가 잇따라 열리고 있다. 반려동물로 많이 키우는 개와 고양이의 식용을 종식해달라는 국민청원의 참여자 수도 20만명을 넘어서다. 동물권보호단체들과 개사육농가단체들은 '개 식용 종식과 동물 보호' 그리고 '개사육농가 생존권'라는 각각 첨예한 대립으로 수년간 갈등을 빚고 있는 양상이다.

지난달 17일 제기된 해당 청원은 16일 오전 10시 30분 현재 21만 1958명의 참여자를 확보해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나 관련 부처 장관 등이 공식 답변을 하는 요건인 '한 달 내 20만 명 참여'를 충족했다.

청원인은 청원개요에서 "불필요한 육식을 줄이고, 동물들의 습성을 최대한 존중해주는 복지농장형으로 바뀌어 나가길 간절히 바란다"며 "법의 사각지대에서 수십년 동안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고 잔인하게 죽어가는 개와 고양이만이라도 제발 식용을 종식해 주기를 청원한다"고 밝혔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17일 오전 11시부터 2시까지 서울시청광장에서 '아임 낫푸드(I am not food)-먹지말고 안아주세요'라는 행사를 벌인다. 케어는 이날 '퍼스트 도그인', 문재인 대통령이 입양한 유기견 '토리'를 캐릭터로 해 만든 인형들을 전시할 예정이다. 또한 강아지를 사랑하는 셀럽들과 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인 심석희, 김아랑 선수도 이 행사에 참석한다.

케어 관계자는 "황금개의 해를 맞아 올해를 '개식용 종식' 원년으로 삼고 평창동계올림픽부터 꾸준히 캠페인을 벌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개·고양이 도살 금지법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에서 동물권 단체 회원 등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고 있다. 복날만 되면 희생되는 개들이 많다"며 "다행히 동물권보호 운동 등을 통해 개농장이나 사철탕 등 식당 등 산업적으로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소비율도 5년전과 비교했을 때는 3분의 1 이상 준 것으로 파악된다. 주로 먹는 분들도 나이가 든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가족보호이용에 관한 법률이 통과돼 개농장시설 내 처리시설을 신고하지 않으면 불법으로 간주, 처벌받기 때문에 그동안 개농장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라고 덧붙였다.

케어는 동물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다. 그 대상은 개만이 아닌, 소, 닭, 돼지, 말 등 포괄적이다. 서울에서만 5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울만큼 반려견이 증가하고 있고, 굳이 식용으로 개를 간주해야 할 이유도 그당위를 잃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가족 사육에 있어 불필요한 학대가 없어야 하고, 그렇다면 구출도 해야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다. 개는 특히 합법 축산물도 아니고, 반려동물인 구도 늘어나고 있는만큼 논란도 커지고 있다"며 "내 개를 잃어버리면 잡혀먹지 않을까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 개, 고양

이에 있어서는 식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육견농가들의 반대 목소리도 높다. 5000여명 육견농가 회원들이 속해있는 대한육견협회 관계자들은 지난 주말인 15일 상경해 서울 동화면세점 앞에서 개사육농가 생존권을 촉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주영봉 대한육견협회 사무총장은 "동물단체에서 개사육을 '불법'이라고 주장하는데, 새빨간 거짓말이다. 1963년 만들어진 축산법에는 여전히 '개'를 '가축'으로 분류해 놓고 있다. 다만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슬그머니 '개'가 빠져버렸다. 축산법이 모법인데, 법리적으로 문제가 많다"며 "개 사육에 발정유도제 사용이나 항생제 남용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회원들 99%가 미생물을 발효시켜 개밥에 섞어 먹인다. 그리고 번식도 계절번식으로 일년에 1~2번 가능하고, 인위적인 번식은 유도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주 총장은 "우리 회원사들은 300마리 이상, 식용 개 사육을 목적으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오진희 기자

서울도서관, 입양인식 개선 팔 걷어

오늘부터 전시·강연 잇따라 진행

서울도서관은 17일부터 8월 12일까지 입양인식 개선을 위한 전시와 강연을 진행한다. 16일 밝혔다.

행사에는 입양동화 '가족이 되었어요' 원화 전시와 전시 연계 프로그램 '입양 토크 콘서트', '임정진 작가와의 만남'이 마련됐다.

동화 '가족이 되었어요'는 중앙입양원이 입양 문화를 알리고 인식을 개선하고자 지난 2017년 출간한 도서다.

이번 전시에는 동화 원화 16점이 공개된다. 책 속 주인공들이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 원하는 가족을 찾아가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보여줘 입양에 대한 거리감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전시와 연계해 24일 오후 7시부터 서울도서관 4층 사서교육장에서는 '입양



토크 콘서트'가 열린다. 콘서트는 입양 절차를 진행하고 있거나 입양 상담을 받는 예비 부모, 입양에 관심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입양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을 나눌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서울역사박물관

아날로그 감성 영화 상영

서울역사박물관은 오는 17일부터 8월 23일까지 서울의 1930~1950년대 모습을 담은 아날로그 감성의 영화 프로그램을 상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박물관은 한국영상자료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1934년 안중화 감독의 '정춘의 십자로'와 1958년 신상옥 감독의 '지옥화'까지 총 12편의 작품을 상영한다.

영화 프로그램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와 6시 30분, 박물관 1층 대강당에서 상영된다. 예약 없이 선착순 입장 가능하다.



영화제 행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역사박물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현정 기자